

목 차



보험산업 동향	12
美보험사 레모네이드, “테슬라 자율주행 사용 시 반값 보험료”	12
미국 메디케어, 6개 주에서 AI 기반 사전 승인 제도 실시	13
미국에서는 삼성 AI 가전 쓰면 보험료 깎아준다	14
DB손보, 금융권 최초 ‘다국어 통역 AI AGENT’ 서비스 오픈	15
생성형 AI에 뚫렸다...신종 보험사기 등장에 보험업계 ‘긴장’	16
중국, 스마트 기술로 의료 및 보험 데이터 통합	17
보험연수원·서울대, 국내 첫 ‘AI 출제 시스템’ 개발	18

美보험사 레모네이드, “테슬라 자율주행 사용 시 반값 보험료”

- 미국의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세계 최초의 상품인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26.1.21.)
 - 레모네이드의 ‘자율주행차 보험’은 테슬라 운전 중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하여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음
 - * 차가 스스로 대부분의 주행 판단과 조작을 대신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 레모네이드는 이번 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여 테슬라 운전자의 실시간 FSD 정보를 수집함
 - 이를 통해 레모네이드는 운전자가 FSD를 이용하여 주행하였는지, 직접 운전하였는지 구분하여 이원화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FSD로 자율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



자료: 연합뉴스

-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 안전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료의 추가 할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레모네이드 공동 창업자 겸 사장 사이 와이닝거는 “360도 전방위를 감지하고, 절대 졸지 않으며,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는 차(자율주행차)를 인간과 비교할 수 없다”며, “FSD로 주행하는 테슬라는 사고 발생률이 훨씬 낮다”고 밝힘
- 레모네이드는 이 보험을 1월 26일부터 애리조나 주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오리건 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 2015년 설립된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험료 산정과 보상 청구 절차를 빠르고 간소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2026.1.22.) ‘자율주행이 더 안전’ 판단?...美보험사 “테슬라FSD에 반값 보험료”

Reuters(2026.1.22.) Lemonade to cut insurance rates for Tesla drivers in endorsement of EV maker's software technology

미국 메디케어, 6개 주에서 AI 기반 사전 승인 제도 실시

-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 당국은 2026년 1월부터 미국의 6개 주*에서 640만 명의 전통적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AI를 활용한 사전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

*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주

** Medicare,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일부 장애인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제도

- 사전 승인이란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보장 여부에 대한 심사·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고가 검사, 입원, 재활, 특정 시술 등)
- 미국의 메디케어 제도는 전통적인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민간 보험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메디케어)로 나뉘며, 전통적인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비해 환자당 사전 승인 요청 건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
- * (2023년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의 사전 승인 건수: 1인당 평균 0.01건(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건 기록)
- 그 이유는, 보험사는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에 대해 사전 승인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때문
-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사전 승인 요구 건수가 많은 대신 추가 혜택이 다양하고(치과·시력·청력 검사 등) 본인부담금액에 상한선이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메디케어와 차이가 있음

- 해당 조치는 ‘WISeR*’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6년 간의 시범 사업 중 첫해인 2026년에는 17가지 특정 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짐

* Wasteful and Inappropriate Service Reduction(불필요한 서비스 근절)

** 피부 및 조직 대체재, 전기 신경 자극기 이식, 골관절염에 대한 무릎 관절경 수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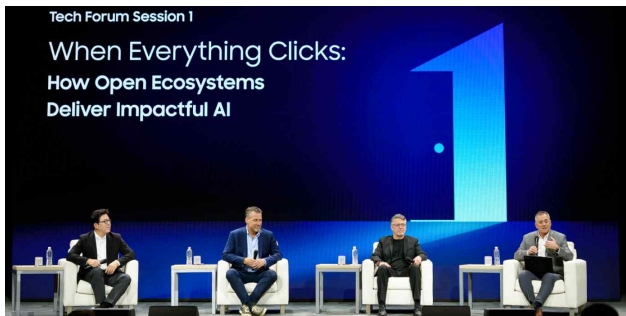
- ‘WISeR’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의 낭비, 사기, 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나, 취약 계층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 보건 당국은 입원·응급 서비스를 비롯해 지연될 경우 환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치료 등은 AI를 활용한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AI가 해당 절차를 검토하여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

출처: Market Watch(2026.01.03.) Over 6 million Americans on Medicare will now need to get prior authorization from AI for these 17 procedures

미국에서는 삼성 AI 가전 쓰면 보험료 깎아준다

- 삼성전자는 CES 2026에서 미국 전문 보험사 HSB(Hartford Steam Boiler)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홈 세이빙’ 서비스를 발표(’26.1.5.)

<CES 2026에서 열린 ‘삼성 기술 포럼’>



자료: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삼성 기술 포럼’에서 ‘돈을 아껴주고 가족을 지키는 AI 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기술과 보험을 결합해 고객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 HSB의 ‘스마트홈 세이빙*’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싱스**’에 연결된 세탁기나 건조기, 오븐 등의 가전제품이 집안의 ‘센서’ 역할을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
 - * 누수·화재 등 주거 위험에 대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삼성의 ‘스마트 싱스’에 가입한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
 - **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통합 스마트홈·IoT 플랫폼으로, 집 안팎의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하나의 앱과 생태계로 연결·제어하는 시스템
- 만약 세탁기에서 누수가 감지되거나 오븐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파악해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 요인을 차단하며, 예방 기능 덕분에 보험사는 낮아진 위험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가능해짐
-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플로리다 주에서 시범 운영해 많은 가정에서 상당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었으며, 올해는 미국 전역과 유럽 등에서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홈 세이빙’과 관련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지금까지 없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
 - HSB 측은 “전통적인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보상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다”며 “AI와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우리는 사고를 미리 막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사고를 예방하면 보험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임

출처: 세계일보(2026.01.06.) *美선 삼성 AI 가전 쓰면 보험료 깎아준다는데... 왜? [CES 2026]*

DB손보, 금융권 최초 ‘다국어 통역 AI AGENT’ 서비스 오픈

- DB손해보험은 금융권 최초 외국인 전용 ‘다국어 통역 AI AGENT’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난 정식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힘

<‘다국어 통역 AI Agent’ 오픈식>



자료: DB손해보험

- 글로벌 AI 전문 기업 ‘유베이스’와 협력해 개발된 ‘다국어 통역 AI 에이전트’는 AI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대상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상담 전 과정을 실시간 다국어로 지원하는 서비스
 - 해당 서비스는 보험 가입 의사 확인, 계약 주요 내용 설명, 소비자 이해도 점검 등 완전판매 절차 전반을 외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언어 차이로 인한 정보 오인이나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외부 통역 업체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AI 기반 구조로 설계돼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흐름의 연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
 -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 또한 중단 없는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통역 품질의 편차를 줄여 일관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 DB손해보험은 실제 상담 결과와 고객 반응을 분석해 적용 언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DB손해보험 측은 “앞으로도 외국인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출처: 한국보험신문(2026.01.16.) DB손보, 금융권 최초 ‘다국어 통역 AI AGENT’ 서비스 오픈

생성형 AI에 뚫렸다...신종 보험사기 등장에 보험업계 '긴장'

- 법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 낸 일당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 A씨는 2024년 7월 ~ 2025년 7월 챗GPT로 허위 진단서를 제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허위 수령하였음
 - 이후 A씨는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지인 B씨와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으며, 생성형 AI로 허위 진료내역을 생성해 11회에 걸쳐 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 부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AI를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심사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에게 피해를 입은 보험사가 최소 네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심사 시스템이 생성형 AI에 의해 뚫렸다는 의미
 - 이는 보험사가 구축한 위·변조 서류 검증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
 -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청구 건에 대해 병·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과 진단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액 청구로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 간주됨
 - 지난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2021년 9,434억 원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상황

<보험사기 적발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적발금액	8986억원	9434억원	1조818억원	1조1164억원	1조1502억원
적발인원	9만8826명	9만7629명	10만2679명	10만9522명	10만8997명

자료: 금융감독원

출처: 전자신문(2026.01.08.) 생성형AI에 뚫렸다...신종 보험사기 등장에 보험업계 '긴장'

중국, 스마트 기술로 의료 및 보험 데이터 통합

- 중국 국가건강보장국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더욱 개인화되고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의료 및 의료보험 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26.1.11.)
 -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존에 구축된 국가 의료보험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진단 및 치료 기록,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보험 지정 병원의 핵심 데이터를 해당 시스템에 통합할 예정
 - * 보험 자격 관리, 진료비 청구·정산, 급여·비급여 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2012년 구축)
 - 또한 건강 검진 기관 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및 가정용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와 같은 여러 분야의 데이터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사업은 보험 가입자에게 더욱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케어 분야의 스마트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번 사업이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보안 및 접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 이 플랫폼의 중요한 특징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
 - 프로필에는 과거 수술, 알레르기, 치료 기록과 같은 의료 이력과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되며, 보험료, 의료비 지출, 계좌 거래 내역, 가족 관계, 신용 기록 등 보험 및 재정 정보도 추가될 예정
-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는 중
 - 중국 정부는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개인 프로필 기반의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위험 모니터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또한 AI 기반 약품 개발, 민간 건강보험, 스마트 노인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익명화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출처: 차이나데일리(2026.01.13.) Smart tech to unify healthcare and insurance data

Asia Insurance Review(2026.01.14.) China : Technology to help unify healthcare and insurance data

보험연수원·서울대, 국내 첫 'AI 출제 시스템' 개발

- 보험연수원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격시험 문제 출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25.12.30.)
 - 보험연수원은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명주 교수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이트릭스(iTrix)'와 함께 AI 기반 시험문제 자동출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 중
 - 해당 기술은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부터 보험조사분석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AI가 직접 출제한 문제가 실제 시험에 반영될 전망
- 이번 시스템은 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자격시험 수준의 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핵심
 - 연수원은 해당 기술을 보험 관련 자격시험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자회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분야로 확대할 계획
 - AI 출제 시스템은 기존 시험의 구조, 학습자료, 문제유형, 난이도(정답률) 등을 반영해 규격화된 문항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보안이 중요한 자격시험 특성을 고려해 외부 오픈모델이 아닌 폐쇄형(내부 구축형) LLM을 적용할 예정
- 보험연수원은 이 기술이 도입되면 시험 출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당 기술은 모의고사나 수험생 맞춤형 학습지원 도구로 활용 가능해 교육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
 - 보험연수원은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에서 학습자의 이해도 평가, 실시간 성취도 분석 등 맞춤형 평가 시스템으로 확장할 방침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AI 시험출제 시스템은 보험연수원이 추진해 온 AI 교육 혁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
 -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자회사를 통한 한국형 AI 학습 관리시스템(LMS) 개발도 병행해 교육 인프라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언급

출처: 글로벌이코노믹(2025.12.31.) AI가 보험시험 문제 낸다...보험연수원·서울대, 국내 첫 'AI 출제 시스템' 개발